

2024년

혁신지원사업

5월 뉴스레터

학생모니터링단 모니터링 후기



서울예술대학교 혁신지원사업단
SEOUL INSTITUTE OF THE ARTS INNOVATION COLLEGE OF KOREA

혁신지원사업 5월 뉴스레터

vol.01

에디터 이진 최서진

<문화예술산업 인재양성 프로젝트 '아프로(A-PRO)페스티벌'> _ 모니터링단 김민경

아프로프로젝트는 서울예술대학교의 예비 예술가들을 산업 현장으로 연결하고 다양한 학부에서 개발된 창작물 중 우수한 콘텐츠의 IP 확보 및 비즈니스 모델 방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다.

아프로프로젝트 중에서도 '아프로 스테이지'에 선정된 작품은 산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남산 드라마센터에서 '작품 피칭' 및 '하이라이트 장면 낭독 실연'의 기회가 제공되며, 스피치 및 발표 자료 준비를 지원 받는다. 또한, 청소년극 최우수작에 한하여 2024년도 B성년 페스티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혜택이 마련되어 있다.

그 뿐만 아니라 2023학년도 아프로 스테이지 후속 지원작 '황청백흑 그리고 빨강'에 대한 후속 지원 및 결과가 우수한 만큼 많은 학생들의 관심이 모였으며, 지난 4월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심의를 거쳐 총 13개의 작품이 선정되었다. 선정 결과 통보와 더불어 심의위원으로부터 양질의 코멘트를 전달 받을 수 있어 대체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창작 교육 실습기자재 개선 프로그램> _ 모니터링단 이하림

창작 교육 실습기자재 개선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창작 환경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된다. 다음은 올해 여름방학 동안 개선될 주요 계획들이다.

<예장 개선 계획>

- 2층 발코니 검정 막 커튼을 설치
- 창가 커튼 전동으로 교체
- 노후화된 CCTV 보안을 위해 CCTV를 추가 설치
- SM 데스크를 활성화
- RD 패널 교체
- 조명용 전원의 전체 케이블을 교체를 통한 안전성 확보
- 발코니 난간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
- 비어 있는 공간에 수납 공간을 새로 설치

<나동 6,7 스튜디오 개선 계획>

- 6 스튜디오 조명 바텐 1M 낮춤으로써 비전공 학생들의 불편함 해소하고자 함.
- 7 스튜디오의 고정된 트러스트 형식의 바텐을 자동으로 내려오는 형태로 변경하여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함.

<예술창작인을 위한 심리학특강 (완벽주의에서 벗어나기)>_ 모니터링단 이복

완벽주의에 의해 스트레스받고 있는 예술인들을 위해 완벽주의에 대해 알아보고,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며 실천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온라인강의인 예술창작인을 위한 심리학 특강은 집에서든 간편하게 경험할 수 있는 지원사업 중 하나이다.

참여방법은 먼저 종합포털에 들어가 비교과프로그램창으로 들어간 후 신청을 하고 수강하면 될만큼 간단하다. 신청 후에 LMS로 들어가 신청상태를 확인하고 학교 강의를 듣는 것처럼 LMS안에서 수강이 가능하다.

두시간안에 많은 내용이 들어있지만 그 중 몇개의 내용만 가져와보면,

1. 완벽주의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자신을 가혹하게 비판하는 것이다.
완벽주의에 대해 알아보고 완벽주의성향을 자가진단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다.

2. 완벽주의자에 대해

- 성장배경과 사회환경이 완벽주의자에게 미치는 영향등을 알아본다.

3. 부적응적인 완벽주의의 특징

- 기준충족에 대한 경직된 열망이나 비판적인 자기평가를 하고 있는 자신에 대해 알아본다

이외에도 부적응적인 완벽주의자의 증상이나 완벽주의에서 벗어나는 방법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24학년도 하반기 Global Artist Workshop 안내>_ 모니터링단 김찬우

Global Artist Workshop은 학생들의 글로벌 창작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로,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아티스트와 전문가를 초청하여 집중 워크숍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2024학년도 Global Artist Workshop은 이탈리아 극단 Theatre No Theatre가 진행할 예정이다. 이 극단은 20세기 연극의 거장으로 불리는 예지 그로토프스키가 1987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토마스 리처즈가 이끌고 있는 예술 단체이다. Theatre No Theatre는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유럽, 미국, 아시아를 오가며 공연, 워크숍, 강연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 우리 서울예대에서 워크숍을 진행하게 되었다.

또한, 일본의 거장 극작가 겸 연출가인 히라타 오리자 작가 또한 워크숍을 진행한다. 히라타 오리자는 극단 '청년단'의 대표로 1995년 "도쿄노트"로 기시다 구니오 희곡상을 수상하였고, 그 외에도 "서울 시민", "연극인간",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서 부터" 등 다양한 작품들을 집필하였다.

Theatre No Theatre 워크숍 기간은 6월 24일 - 7월 5일까지 2주간 진행하게 되며 워크숍을 수료하게 되면 2학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유명 이탈리아 극단의 워크숍도 듣고 학점까지 얻어갈 수 있는 기회이기에 다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히라타 오리자 작가의 워크숍 기간은 7월 8일 - 7월 12일까지 4일간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SeoulArts Artist-in-Residence>_ 모니터링단 이진, 최서진

올해 처음으로 진행되는 SeoulArts Artist-in-Residence 수업은 해외에서 초청한 3명의 아티스트와 학생들이 장소 특정형 공연을 만들어 나가는 수업이다.

SeoulArts Artist-in-Residence은 3주 동안 한 명의 해외 예술가들이 참여하여 학생들과 함께 장소 특정형 공연을 만들어 나간다. 이후에는 학생들은 9주 간 배운 장소특정형 제작 방식을 활용하여 자체적인 공연을 제작한다. 중앙광장, 학식당, 마동 등 학교 곳곳의 실내외 공간을 활용하여 작은 장소 특정형 공연 제작을 하였으며 학생들의 창작물을 바탕으로 직접 아티스트와 피드백 및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고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 번째로 방문한 아티스트는 스테픈 코플로워츠로, 인터랙티브 설치 미술과 장소 특정성 무용-공연 등 다양한 작품을 제작해온 아티스트다. 그의 수업을 통해 장소를 분석하고,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아티스트 라마는 4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무용가로, 서양과 아시아의 전통 무용을 아우르는 문화를 전파해왔다. 라마의 수업을 통해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자연과 함께 예술을 창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컷 마하리는 힙합과 하우스 뮤직 안무 및 작곡가로, 흑인 문화에 기반한 작업을 펼치고 있다. 그의 수업에서는 흑인 문화에 기반한 예술 창작 방법론을 배울 수 있었다.

이런 특별한 수업은 국제적으로 유명한 예술가들의 창작 방식을 배우고,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과 공동 창작으로 장소 특정형 공연을 만들어내는 기회를 제공한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다양한 수업들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



모니터링단 2팀

혁신지원사업 5월 뉴스레터

vol.01